

單發音読クリニック パワ中8 出産ニュース

오늘 대구에 사는 30 대 부부에게 네쌍둥이가 태어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사는 33 살 박선희 씨가 딸 세 명과 아들 한 명, 모두 네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.

태어난 네쌍둥이의 몸무게는 각 1.9kg 정도로 건강하다고 합니다.

네쌍둥이의 출산 소식에 부부는 물론 지역 주민들도 크게 기뻐했습니다.